

“전남 대표하는 수산업체로 성장하고자파”

고흥 하나수산·(주)창출푸드 이나영 대표

물김 활용 연매출 120억 중견 여성기업인 성장 힌다리새우 등 다양한 양식 도전... 경쟁력 향상

“주력인 김 가공업과 함께 새우 등 다양한 양식분야에 도전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업체로 성장하고 싶어요.”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을 활용, 한해 12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여성 기업인이 주목받고 있다.

청정 바다인 고흥에서 물김 가공업체 ‘하나수산’과 자반 가공업체 ‘(주)창출푸드’를 이끌고 있는 이나영(45)대표가 주인공.

이 대표는 지난 1998년 고흥군 풍남면에서 물김 양식을 시작으로 수산업에 발을 들였다. 바다 사업을 하던 시대의 영향도 받았지만, 수산업 특히 물김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2003년 물김 중매인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자신감을 얻은 이 대표는 다른 생산자들의 김을 구입해 가공업체를 운영해보기로 하고 2006년 도덕면 오마리

에 하나수산을 설립했다.

중매인을 하며 쌓은 인맥과 신뢰 덕에 설립 초기 (주)풀무원의 마른 김 가공업체에 지정되며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시 납품 규모가 8만송에 그치는 등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안팎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납품하고 남은 물량을 직접 서울 가락동 시장 등에 가져다 팔기도 했다.

그러다 풀무원의 김 사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이 대표도 함께 성장했고, 지금은 60만송이 넘는 물량을 납품하고 있다.

사업을 더 키우기로 마음먹은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주)창출푸드를 세웠다. 창출푸드 역시 풀무원 지정 자반 가공업체다.

이 대표의 성과는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의 결과물이라서 가치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일본 등 선진지 견학 중



접한 원심분리형 이물질 선별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 김 가공의 최대 관건인 이물질 선별 방식을 개선한 그는 풀무원을 비롯한 거래처를 설득해 납품당도 올렸다.

또 외부 원격조종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했다. 스마트폰으로 내부 온도 조절은 물론 CCTV를 통해 김 생산 전반적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동 원심탈수기도 최초로 도입해 작업과정

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과 안전사고 위험을 없앴다.

품질이 높아지고 유통을 겸하는 장점이 빛을 발하면서 대상(주)정정원과 일본, 중국 등으로 판로가 확대 돼 초기 5억원 이던 매출은 지난해 120억원으로까지 급성장했다. 해조류 산업을 통해 중견 여성 기업인으로 성장한 이 대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주력 상품이지만 계절사업인 탓에 여름철 공장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우 양식으로 눈을 돌린 것. 중국 등 국제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격 경쟁력이 들쭉날쭉한 김 가공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는 각오도 담겼다.

지난 2016년부터 힌다리새우 양식을 시작한 이 대표는 동남아 등지의 다양한 새우 어종 양식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유통과 품질향상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면서 자금난 등 초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올해만도 30%나 떨어지는 등 가격 등락이 큰 김 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새우를 비롯한 양식 다양화를 통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호남대-광주4차산업지원센터 업무협약
호남대학교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은 최근 ‘미리보는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광주4차산업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수완고등학교 수목화 전시회
수완고등학교는 10월 한 달간 교내 수완갤러리에서 ‘화중유시’라는 주제로 수목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시, 기록물 관리·정보공개 직무연찬 교육 담당자 100여 명 대상...대시민 공공정보 서비스 강화

광주시는 지난 2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할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직무연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공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활동가가 맡아 공공 기록의 이해와 기록물 가치의 중요성 등

공공기록물법의 핵심 내용과 원문 공개, 사전 공개, 정보공개 청구 시 처리절차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됐다.

정 강사는 “기록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기록의 효용성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고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고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고가치·고품질 정보를 개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수 기자



신창동 주민자치위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17일까지 3차례 실시

광산구 신창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애틀유치원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을 실시했다.

2018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돼 ‘안전한 신창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위는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번 교통안전교실을 계획했다.

이날 행사를 포함해 오는 17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3곳에서 총 3회 교통안전교실을 연다.

그 첫 행사로 열린 이날 교통안전교실

에서 참가 어린이와 부모는 함께 교통사고 예방법을 배우고, 가방 안전고리 만들기 체험을 하는 등 생활 속 교통안전에 대해 공부했다.

동 주민자치위 박정희 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어린이들 스스로 사고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통안전교실 이외에도 동 주민자치위는 지구대와 함께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주변에 안전표지판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봉 기자



시교육청-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업무협약
광주시교육청(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최근 교육청 상황실에서 미래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이노비즈 기업을 선도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 자녀교육 공개 특강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학교시설지원단 대강당서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개 특강을 개최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안전점검의 날’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일 단풍철을 맞아 재난취약지역 현장점검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10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재난취약지구와 시설물 등 위험 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벌 쏘임, 뱀 물림 등 가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또 원효광장, 중심탐방지원센터 등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갑작스럽게 당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응급처치를 위해 탐방객이 직접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교육 등이 실시됐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전효숙 안전방재과장은 “단풍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탐방로 순찰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행 중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27-1187)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중찬 기자



장흥 대덕읍 천사모 등산로 정비

천관산역세대를 앞두고 장흥군 대덕읍 천사모(천관산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55명이 천관산 등산로 정비에 나섰다.

천사모 회원들은 최근 천관문화관에서 천관산 정상까지 등산로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등산로 정비는 오는 7일에 개최되는 천관산역세대를 찾는 산악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등반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숫자란 풀들과 잡목을 꼼꼼히 정리하며 관광객 맞이에 구슬땀

을 흘렸다.

천관산은 호남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상 130만㎡ 능선을 따라 은빛 역세 물결이 펼쳐진다.

이재천 대덕읍장은 “천관산은 우리 대덕읍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천관산을 찾는 전국의 산악인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담양 이장연 최용만 회장·금성면 최승권 이장 전남도 이통장 워크숍서 유공표창

담양군이 최근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도지부가 주관해 광양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남도 이통장 워크숍에서 담양군 이장연합회 최용만 회장과 금성면 최승권 이장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지회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 모범 이통장에 대한 표창, 심폐소생술 교육 등 주민과 지방행정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전남의 이통장 간 친목을 다지는 다양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해 모범 이통장 2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유공표창을, 22명에게 전남도지사 유공표창을 수여했으며, 담양군의 최용만 이장과 최승권 이장이 표창을 받았다.



특히 담양군 이장연합회 최용만 회장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유공 표창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담양군의 모든 이장이 행정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장동원 기자